

# 교착상태 북미 협상 중재 모색...판문점 선언 이행 속도

### 남북 정상회담 18~20일 평양 개최...어떤 의제 올까

9월5일		9월 9일		18~20일		9월18일~10월1일	
대북특사 방북	북한 9-9절	미상	폼페이오 방북 가능성	남북정상회담(3차)	유엔총회	27일 문 대통령 연설	29일 리원호 외무상 연설
· 남북정상회담 일정 협상	· 정권 수립 70주년	· 경제협력	· 북미간 비핵화-중전선언에 대한 입장	· 문 대통령 평양 방북	· 27일 리원호 외무상 연설	· 중전선언 가능 여부 관련	· 폼페이오 방북 가능성
·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 경제협력	· 북미간 비핵화-중전선언에 대한 입장	· 북미간 비핵화-중전선언에 대한 입장	·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 중전선언 가능 여부 관련	· 폼페이오 방북 가능성	· 남북미 정상회담 열리지 않음
·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 경제협력	· 북미간 비핵화-중전선언에 대한 입장	· 북미간 비핵화-중전선언에 대한 입장	·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 중전선언 가능 여부 관련	· 폼페이오 방북 가능성	· 남북미 정상회담 열리지 않음
·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 경제협력	· 북미간 비핵화-중전선언에 대한 입장	· 북미간 비핵화-중전선언에 대한 입장	·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 중전선언 가능 여부 관련	· 폼페이오 방북 가능성	· 남북미 정상회담 열리지 않음

### 북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중전선언 시기 등 논의 예상 남북연락사무소·DMZ 유해발굴...개성공단 포함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지난 5·26 회담 이후 3달 만에 열리는 두 정상이 어떤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고 성과를 창출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꼽히는 것은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 조율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는 듯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들어 상향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촉진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핵화 조건의 선형 조건으로서 중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내고 이를 둘러싼 집중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중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중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방식, 참여주체 등도 비핵화 조치 방안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 역시 핵심 의제의 한 축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이 그동안 얼마나 잘 실천됐는지를 점검하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이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남북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한다'는 데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관계 개선 방안 등도 폭넓게 거론될 수 있다. 지난 7월 31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 유해발굴과 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이와 관련한 남북 정상 간 합의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산가족 상봉 및 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 부분의 교류 활성화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의 경제협력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8·15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구체적 사업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경제협력의 경우 북한 측에서 한

### 특사단 방북 결과 여야 반응

## "적극 지지·협조" "달라진 게 없다" "평화정착 기대"

여야는 6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 등 대북 특별사절단이 발표한 남북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지와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평가절하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 지지하고 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모든 협조를 위한 민간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힌 데 대해 "북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의구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후 남북·북미 관계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 협상력,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에 있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난번 특사단과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평가절하했다. 운영석 수석대변인은 "18일부터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비핵화 문제의 매듭은 한미 동맹·신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9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김정은 '비밀 메시지' 정의용 靑 실장 '메신저' 역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가 있었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를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남긴 메시지가 있었다"며 "정 실장이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이밖에 방북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가 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배경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이라며 정 실장의 메시지 전달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 실장이 오늘 오후 8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김 위원장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볼턴 보좌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결과보고를 받고 만족해 하셨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비핵화를 실행하겠다고 한 것은 평화협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중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에 해당한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는 마지막 시점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북, 18일 주민 동원 대대적 환영 '최고 예우'

### 남한 대통령 어떻게 맞나

오는 18~20일 북쪽에서 정상회담을 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출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문 대통령 방북 첫날인 18일 북한 당국은 평양에서 주민을 동원한 성대한 환영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환영행사 장소는 문 대통령이 항공편을 이용할지, 육로로 방북할지에 따라 평양국제비행장이 될 수도 있고 평양 시내의 상징적인 곳이 선정될 수도 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특별기를 이용해 방북했을 때 북한은 평양 순안공항(현재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 2000년 김정일 위원장, 평양 순안공항서 김대중 대통령 영접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차량으로 평양 이동...北 의장대 사열

김 전 대통령은 공항까지 직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았으며, 북한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2007년 10월 2일 도보로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북한 땅을 밟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차량으로 평양까지 이동한 뒤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도 환영행사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북한

###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합니다. 010-3605-5000

### 전국 부동산 교환

대지, 빌딩, 임야 등 모든 부동산  
전국최고 의물대량보유  
신속, 책임중개  
교환으로 양도세 고민 해결!  
거문도 부동산. 010-6834-7400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8-076호

#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공급공고

### 1. 공급대상 토지

○ 소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블록명	주요 규모	면적 (㎡)	세대수	최고층수	건폐율	허용 용적률	공급금액 (천원)	신청예약금 (천원)	공급 방법
공동41	60~85㎡	34,914.3	543	25	50	180	27,442,640	공급가격의 5%	추첨
공동42	60~85㎡	31,044.5	482	25	50	180	24,199,190		
공동45	60~85㎡	22,513.9	350	20	50	180	17,437,020		

※ 분양신청 전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분양공고에 게시된 공급 대상토지 현황 및 각종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가 필요하오니, 신청 전 금융기관 등에서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오룡택지개발지구는 공고일 현재 분양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업지구입니다.

###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함

###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추첨신청 및 신청예약금 납부	추첨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일정	'18. 09. 18(화) 09:00 ~ 16:00	'18. 09. 19(수) 10:00	'18. 09. 19(수) 14:00 이후	'18. 09. 20(목) 10:00 ~ 17:00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a href="http://www.onbid.co.kr">http://www.onbid.co.kr</a> )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사업부 입찰집행관 PC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a href="http://www.jndc.co.kr">www.jndc.co.kr</a>	전남개발공사 8층 분양보상사업부

### 4. 추첨 신청 방법

① 추첨 참가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공급대상 토지의 세부내역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 등은 입찰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④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자 각자는 해당 신청자격을 모두 구비해야 하며, 공급신청기간내에 전자서명방식을 통해 공동입찰자 전원이 각각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입찰서에 전자서명하거나 또는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우리공사 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전남개발공사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⑥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각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입찰서에 전자서명하거나 또는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우리공사 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전남개발공사에 원본을 제출 하여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⑦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당첨자 결정방법

① 공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상이한 금액으로 공급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 예를 들어, "온비드"에서 신청토지의 '최저입찰가'가 100,000,000원일 경우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100,000,000원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다수의 신청으로 경쟁시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쟁이 없는 경우 단독신청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 6. 신청예약금 납부, 귀속 및 반환

납부 계좌	신청 접수시 개별부여
가) 납부	
① 신청예약금은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보증금 납부계좌에 전액을 입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고, 신청예약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란 입금이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예약금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러 신청예약금 납부시 은행공통금 등의 장래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③ 법인이 공급 토지 수개의 필지에 신청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신청예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에 입금하여야 하고,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속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 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 됩니다.

다) 반환

① 당첨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유찰자의 신청예약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차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신청예약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7. 대금납부 방법

각종 이자율은 우리공사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가) 3년 유이자 분할: 계약시 10%, 잔대금은 매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

※ 필지별 정확한 할부금액은 필지별 계약서 약정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약정대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에 맞추어 은행계좌로 입금(계약자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할부이자: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 중 빠른 시점부터 미납잔금에 대하여 할부이자(연 3.5%)가 부과됩니다.

다) 지연손해금: 매매대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닐 때에는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연기간	30일 미만	30 ~ 90일	90일 초과
현행 지연손해금률	7.0%	8.5%	10.5%

※ 자세한 공고 내용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ndc.c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